

중국이 몰려온다(1)

삼성경제연구소

중국경제는 성장잠재력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전망이 밝으며 향후 10년간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할 대상국가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서 중국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다루어 보고자 한다.(편집자)

목 차

- I.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 II. 중국경제 도약의 실상
- III.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지역들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여 78년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97~99년간 7~8%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통화를 절하했지만 위안화 가치는 평년을 유지하는 등 97년 이후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위상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거대한 내수시장 존재가 가장 큰 강점으로서 중국 인구는 현재 12.7억명에서 2050년 16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전략

I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 성장 흐름을 타기 시작한 중국경제

최근 중국경제는 2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2000년 8%에 이어 2001년 1/4분기에도 8.1% 경제 성장을 하였으며 미국 및 일본의 침체, 한국과 동남아의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중국만이 홀로 호황을 구가하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비교>

(전년동기비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1/4
중국	8.8	7.8	7.1	8.0	8.1
한국	5.0	-6.7	10.9	8.8	3.7
태국	-1.4	-10.8	4.2	4.4	1.8
미국	4.4	4.4	4.2	5.0	1.3*
일본	1.9	-1.1	0.8	1.5	-0.2*

주 : *미국, 일본의 2001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자료 : 중국통계연감, ADB,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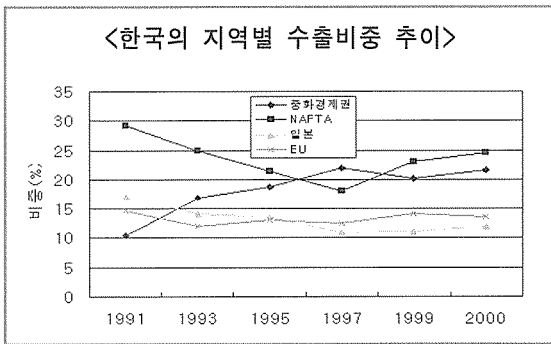
<중국경제의 장기 전망> (전년동기비 %)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연평균 성장률	7.8%	8.1%	7.2%

자료 : 중국사회과학원 및 WEFA

적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6,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막강한 중화경제권의 화교 네트워크와 자본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전망이 밝다.

중국경제는 10차 5개년 계획기간중(200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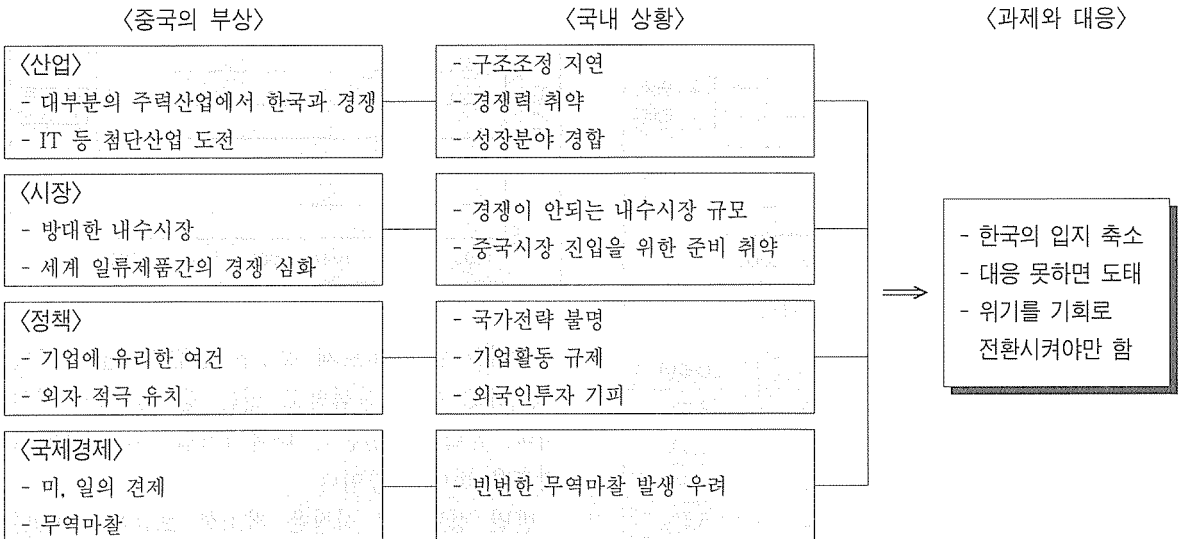
년) 연평균 7.8% 성장이 예상되며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개최 등이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플러스로 작용이 예상되며 2001년 6월 미·중간 이견이 해소되었고 연내 WTO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앞으로 안정적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위협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으로써 무역, 투자 등에 미칠 영향력이 계속 증가할 것이며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2000년 372억 달러로 총수출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1991년 총수출의 10% 수준)

중국경제는 시장확대와 신산업 부상으로 수출과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국내 한계산업의 퇴출이 가속될 것이다. 또한, 중국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IMF사태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IT산업의 입지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경제가 현재 위상을 지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경제>



키고 세계경쟁에서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이며 중국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업도 중국 부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II

중국경제 도약의 실상

□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산업

중국은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 전통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하면서 세계 상위권의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제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단계로 나아가면서 신산업을 보강하고 있다.

중국산업은 이러한 전통산업 위주였으나 최근 IT 등 첨단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으

며 그동안 중국의 발전은 자원 동원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었으나 점차 기술과 창의성이 증시되는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가전생산국으로 부상하여 TV(세계점유율 36%), 에어컨(50%), 세탁기(24%)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일본 가전업체들의 경우는 사업부서의 본사 기능을 아예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마쓰시다의 TV, 도시바의 비디오, 산요의 DVD 플레이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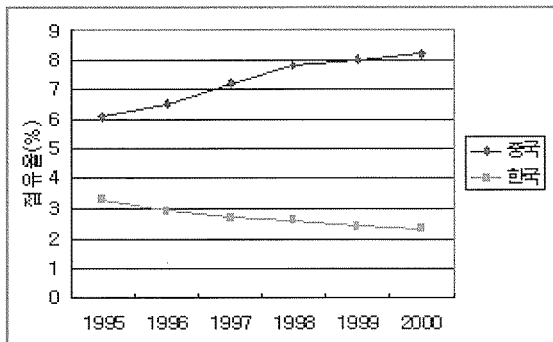
한국은 중국의 진출로 인하여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제품들이 중국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0년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노키아, 모토롤라, 에릭슨 등 빅3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은 현지 생산공장이 아직 없으나 시장 점유율 5~6%로 추격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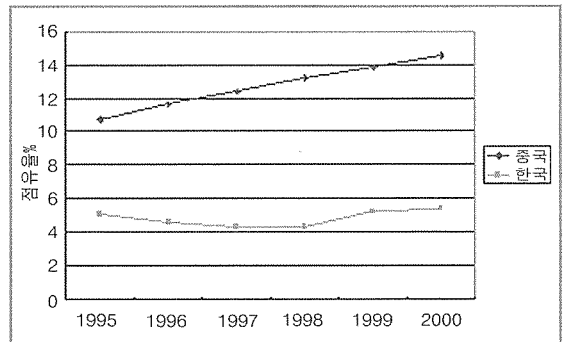
컴퓨터·정보시스템의 경우는 IBM이 선두를

〈주요 경쟁시장에서의 한국·중국 제품의 점유율 추이〉

〈 미국 시장 〉



〈 일본 시장 〉



자료: US Census Bureau, KOTIS,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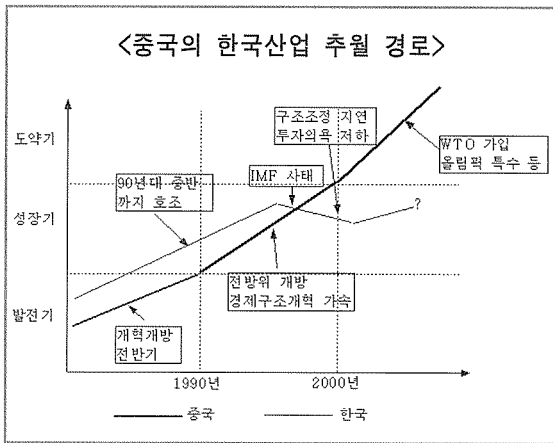
구분	1995년	2000년
미국시장	중국제품 6.1%	8.2%
	한국제품 3.3%	2.3%
일본시장	중국제품 10.7%	14.5%
	한국제품 5.1%	5.4%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경우는 필립스, 벨, 모토롤라, NEC 등이 선점하고 있는 등 첨단분야에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각축을 벌이는 중이다.

반면 정보통신 시장은 저조한 보급을 (2000년

<중국과 한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추이>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분야	5년내 대등할 분야	10년내 대등할 분야	10년후에도 한국이 계속 우위 유지
백색가전 (중국 1위, 한국 5위) 섬유(의류, 직물) 신발(중국 1위), 농기계	합섬 디지털가전 첨단공작기계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보급률 : 이동전화 35%, 인터넷 1% 미만)을 감안할때 향후 선진기업의 진출, 시장 급팽창, 중국 정부의 육성정책등에 힘입어 무궁한 수요 팽창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이 예상된다.

□ 10년내 중국이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

중국은 백색가전, 섬유(의류·직물), 신발의 생산·수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설비, 플랜트 건설 등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범용 기계의 기술수준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일부 중화학공업과 고부가가치 분야는 5년내에 한국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합섬, 디지털 가전 및 첨단공작기계는 5년내 한국과 대등해질 전망이며, 생산능력 세계 1위인 철강산업

의 기술력은 5년내 한국과 대등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정보통신 분야는 5~10년내 한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자동차 및 석유화학, 조선 등 중화학공업의 기술력은 10년내 한국과 대등해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생산능력[석유화학(중국 5위, 한국 3위), 조선(중국 3위, 한국 1위)]은 한국을 추격중이나 기술력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10년후에도 한국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 정도이나 최근 중국의 투자 강화로 이 부분도 크게 낙관할 수 없다.

중국의 산업발전은 우리와 비슷한 경로를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디지털가전, 정보통신 등 IT산업에서 모두 중국과 한국이 경합을 이룰 전망이다.

한국이 IMF사태를 맞아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산업육성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임금에서 불리한 경공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장치산업의 위축 내지 도태가 가속될 전망이다.

□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출현하고 있고 선진 경영기법 도입

조선, 철강 등의 제조업과 항공, 미디어 등 외자진입을 규제하는 기간산업에서 국유기업의 통합·재편으로 거대 기업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기업인 호동(鳳東)조선집단(상해)과 중견기업인 중화조선소(상해)를 합병, 중국 전체 건조량의 20%를 차지하는 축동중화조선

<중국 국유기업의 통합·재편에 따른 대기업 출현>

업 계	통합·재편 내용	생산능력 등	기업규모, 통합효과
조 선	- 후동조선집단과 중화조선소 합병 - 세계 조선수주량 비중은 한국(41%), 일본(30%), 중국(10%) 순	현재 조선 수주량 33척	- 중국건조량의 20% - 2005년 조선량은 2000년의 2배인 120만톤
알미늄	- 제조개발 관련 8개사 통합	연산 68만톤	- 세계 3위 규모
철 강	- 보산, 수도, 무한의 3개 철강 메이커 업무제휴 - 2001년 가을 유럽 철강업체 합병(세계 최대 메이커), 일본의 NKK와 川崎제철의 경영통합 합의 등에 대응	연산 3,000만톤 (3사 합계)	- 신일본제철과 비슷 - 세계유수 규모
항 공	- 대규모 10개사를 국제, 동방, 남방 항공 3사를 핵심으로 집약	보유기체수 118~180대	- 과당경쟁 배제

자료: 일본경제신문 2001.5.14

집단을 발족하여 조선 대국을 목표로 하는 조선업계를 재편하였다.

철강업계는 선두 3개사인 보산(寶山)철강(상해), 수도(首都)철강(북경), 무한(武漢)철강(호북성) 등 3개사가 원료 공동조달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또, 국영기업의 통합·재편을 급속히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기업의 경영>

-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 하이얼(海爾)그룹
 - 사원 아이디어의 가격책정 및 공개로 급여격차가 최대 10배(사원의 제안을 가격으로 평가하고 공개적으로 평가)
 - 연구개발 부문에 대해서도 개발된 상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 보상
- 유선전화기 부문에서 11년간 1위를 지키고 있는 TCL 그룹
 - 자회사 주식의 40%를 관리직에게 분배, 업적이 목표를 초과하면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유사 스톡옵션 제도)
- 렌상(聯想)그룹
 - 정형화된 승진·급여제도가 없음(상사, 부하, 동료들이 360도 평가)

추진하는 것은 WTO 가입으로 경영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며 주식의 해외상장을 통해 설비능력 증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유력기업과 제휴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중국 최대의 PC 메이커 렌상그룹(聯想集團, Legend Group)은 대표적 정보 통신 기업이며 2000년 6월, '비즈니스위크'의 세계 100대 첨단 정보통신기술기업 평가에서 8위를 차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 최대의 반도체회사인 TSMC(臺灣積體電路製造, 5위)와 함께 10대 기업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기술력과 브랜드에서 국제적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추세에 있다.

전자,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미 기업들보다도 더욱 '자본주의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보상체계, 경영관행 등에 있어 중국의 전통적 국유기업의 경직적 행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스톡옵션제 도입 등 철저한 수익성 위주로 경영과 동료 및 부하에 의한 360도 평가와, 연공에 구애받지 않고 실적에 따른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기기 메이커인 후아웨이(華

〈중국 경제발전 정책의 추이〉

시기	개혁·개방 추이	목표	중점 육성산업
1980년대	- 1978년 개혁개방 천명 - 1980년 경제특구 설치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 경공업 및 소비재산업
1990년대	- 1992년 등소평 남순강화 - 전방위 개방 - 90년대말 3대개혁 (정부, 국유기업, 금융)	- 한국 등 아시아 중진국을 추격	- 중화학공업
2000년대	- 2001년 WTO가입 예정 - 2008년 북경올림픽(유치미정)	- 경제의 질적 도약 - 중진국 수준 달성	-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爲)사의 수석부사장 후용(胡勇)은 96년 대학을 졸업한 최연소 부사장(만 27세)이며 (동사 부사장들의 평균 연령은 34세) 15,000명 사원의 85%가 대졸이고 이중 60% 이상은 석박사이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Nasa Tsai 박사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전기공학 박사로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한 Shanghai Grace Semiconductor(上海宏力半導體製造有限公司)의 건설 책임을 맡고 있다. (대만 최대 기업집단인 포포사 플라스틱그룹이 투자)

□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국가발전 전략과 산업정책을 추진하고자 상해 포동지구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은 우수 공무원을 배치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시의 외자유치 관련 보직은 개혁개방 이후 대학에 들어간 30, 40대의 해외유학파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자 상해시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의 급여는 다른 지역 공무원의 2배 이상을 주고 각 시·성 정부의 초상국(招商局, 투자유치공사) 공무원은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첨단지역의 외자계 기업 유치에서도 극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포동지구 투자 허가 절차는 평균 2주일안에 완료한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 처리한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 방향을 설정해 놓고 적극적이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예로 포동건설은 1990년에 시작되었으나 최근 1~2년 사이에 급성장하였다. 포동건설은 초기에는 외자 유치에 고전했으나 지금은 외국기업들이 쇄도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전략은 “기술·투자과 시장을 바꾼다”는 것이다.

우선 “기술과 시장을 바꾼다”는 중국시장을 무기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투자와 시장을 바꾼다”는 중국시장을 무기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일부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시도하였고, 둘째, 일관된 정책 수행으로 천안문사태 등 정치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였으며 셋째, 필요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노사분규를 통제하고 거액의 횡령, 밀수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등 엄중하게 처벌을 하였다.